



**2015 기회 아젠다:
정의 인식과 실현**

제목: 입법의회/Executive Chamber 임금위원회를 구성하다

일자: 2015년 1월 19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신의 “2015 기회 아젠다”의 10번째 사항, 즉 뉴욕주 선출직 공무원, 커미셔너 및 입법부 의원의 임금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임금위원회 구성을 발표하였습니다.

주정부를 위해 일할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원, 주공무원 및 커미셔너는 뉴욕을 새롭게 바꾸어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. 그러나 임금 인상 역시 개혁과 연관되어야 합니다.

이를 위해, Cuomo 주지사는 행정법 섹션 169에 담긴 입법부 의원, 주지사, 부지사, 검찰총장, 감사원장 및 주 공무원 보수를 조사 및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권고를 하도록 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매 4년마다 소집할 것을 입법부에 제의하였습니다. 임금위원회는 주지사, 상원 및 의회가 각기 임명하는 대표들로 구성됩니다.

위원회는 외부 소득이 없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금을 정하고 외부 소득이 있는 공무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정하는 이중 방식의 임금 조정 일정을 제안해야 합니다. 이 밖에도 입법위원이 벌어들일 수 있는 외부 소득 액수의 상한선, 외부 소득을 올린 방법에 대한 공개, 주정부와 거래하는 회사 또는 개인을 대표하는 일에 제한을 정해야 합니다.

이 위원회는 평가 임금뿐만 아니라 일일 입법 활동비, 비용배상 및 기타 비임금 수당을 제공 받게 됩니다.

모든 권고사항은 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뤄지며, 입법부의 통과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 제정됩니다. 이러한 권고사항은 다음 입법부가 구성되어야 효력을 갖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We Work for the People
Performance * Integrity * Pride